

## 원효의 “고향” 이야기\*

박 정 근(한국외국어대)

**【주제분류】** 한국철학, 형이상학

**【주 제 어】** “고향”, “기막힌 맛”, 일대사(一大事), 불가사의(不可思議), 무심(無心)

**【요 약 문】** 우리들이 흔히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되살리는 ‘기막힌 맛’은 어쩌면 삶의 근원을 맛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서 삶의 근원에 관한 ‘설법(說法)’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설법’이 담고 있는 근원(일심지원(一心之源))과 그 근원의 맛[무소득지일미(無所得之一味)]을 밝혀보았다.

또, 이와 같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대사(一大事)를 하이데거 철학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말해질지를 묻고 있다.

### 1. 머리말

원효의 ‘고향 이야기’는 원효의 삶과 그의 글이 들려주는 “고향”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들은 -조금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나름대로 고향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갖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 ‘고향의 봄!’,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개울의 물이 얼마나 맑았는지, 별이 얼마나 많이 떴었는지, 개울에서 동무들과 물장구치며 놀던 일, 어려서 (고향에서 살 때) 모닥불에 구어 호호 불며 먹었던 감자의 ‘그 기막힌 맛’, 등등.

“인간은 자신의 있음과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의 있음 안에 성(盛)하고 있는 ‘없이 있음’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끌리며 흔들린다.”<sup>1)</sup> 그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410쪽.

리고 그런 “끌림과 흔들림”의 여운이 남아있는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이야깃거리이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의 숨결에 그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 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의 실망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상실감이다. 고향을 찾아간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다. 사실 어려서 여기 살 때는 이곳이 고향인 줄도 몰랐다. 허전함을 감추고 아이들을 달래본다: “그 때는 그렇지 않았단다. 정말 물도 맑았고 모든 것이 좋았어. 그래 우리 같이 감자 구어먹자. 내가 그 맛을 보여줄게!” 애써 구운 감자를 먹는 아이들이 조금은 시큰둥하다. 그 맛이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가 말해준 그 맛은 아닌가 보다. “아빠! 그 기막힌 맛이 어떤 맛이에요?” 아빠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은 녀석들이 고맙지만 기막히게 만드는 물음에 말문이 막힌다. “(아마, 너희들은 지금은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른다. 아빠와 함께 하는 이 놀이들의 의미·감자의 그 맛을! 그리고 나도 지금은 그 맛을 찾으려 애쓰고 있단다.) 음~ 그 맛은 이다음에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기다려보렴!”

“왜냐하면  
깊이 숙고하는 신(神)은  
때 아닌 성장을  
증오하기 때문에.”<sup>2)</sup>

아마 아들 녀석은 그 물음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도, 또한 그 물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를 것이다. 모르면서도 우리는 “고향”을, 그 맛을 어렵풋하게나마 느끼며 산다. 그 물음이 삶, 근원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결코 사라질 리 없다. 그 물음은 녀석들의 삶과 함께 녀석들

2) 윌덜린, <거인들>이라는 주제로부터 (IV, 218),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박회근 역, 『형이상학입문』, 문예출판사, 1997 330쪽.

을 감싸고 있다가 어느 때 튀어나와 녀석들을 물음의 근원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한 일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그렇다. 더더욱 그 질문이 삶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일상적인 질문들은 ‘기다리다 -답을 모색하다’ 보면 그럭저럭 ‘그 나름대로’의 답을 얻거나 적어도 얻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다. 하이데거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마주대할 수 없는데 던지는 질문이 그렇다. 그런 질문은, 질문하고 기다림이 스스로 떨어져나가고 질문할 수 없음이 드러날 때,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기다림이 스스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혹 우리가 질문에, 그 질문이 흔히들 생각하기에 하찮은 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도,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결코 하찮은 질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질문들과 질문하는 사람(만물 萬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주 대할 수 없는 데도 던지는 질문’, 이른바 ‘존재질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질문되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의 ‘본래모습’을 힐끗이라도 본다면, 단지 그것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조차 어찌면 한 평생을 기다려서도 될지 말지 모르는 일임을 느낄 것이다.

감자의 그 기막힌 맛, 그 생생한 맛은 그저 감자의 맛이 아니다. 그렇기에 감자를 백 개, 천 개를 먹는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니다. 그 기막힌 맛은 감자를 보이지 않게 감싸고 있는 “고향”의 맛, “고

---

3) 같은 책, 329쪽.

향-맛"이다. 그 맛은 고향의 산에, 들에, 개울에, 동무들에, 별들에, 달에, 이 세상 모든 것에 한결같이 담겨있는 맛이다.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의 너머에서, 곧 산에서 들에서 "고향"의 모든 것에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맛이다. 그 맛이 한결같기에 "한 맛[일미(一味)]"이라고 하는데, 그 맛에서 이런저런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기에 "얻을게 없는 한 맛[무소득지일미 無所得之一味]"이라고도 한다.<sup>4)</sup>

그리고 그 맛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지만 고향에 간다고 해서 꼭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타향에서 지내며 온갖 종류의 맛을 본 사람에게 "얻을게 없는 한 맛"은 이미 느끼기 어려운 맛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맛은 고향을 찾는 사람에게는 닫혀지고 고향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열린다.

기막힌 그 맛을 찾아서 고향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맛을 찾는 사람은 이미 '그 기막힌 맛'을, 그 맛의 근원인 "고향"을, "고향-맛"을 잃어버렸는데 고향인들 알아볼 수 있을까?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저 방문객일 뿐이다. 방문객은 단지 고향의 언저리를 서성거릴 뿐이다. 그

4) 일미(一味): 모든 현상(사(事))과 본체(이(理))가 두루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가리킨다. 통상 부처의 교법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부처의 교설을 외면적으로 관찰하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듯하지만 그 의미는 하나라는 뜻이다. 은정희·송진현 역주, 『월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24쪽.(앞으로 '은정희·송진현 역주'로 표기하도록 한다) : "이와 같이 얻을 것이 없는 일미가 바로 이 경(금강삼매경)의 중요하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여시무소득지일미, 정위차경지중지요. 단이무소득고, 무소부득...如是無所得之一味, 正爲此經之宗之要, 但以無所得故, 無所不得.]", 상동, 86-87쪽.;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에는 모두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일미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이 곧 일승이다.[귀심원시, 개무소득, 고언일미, 즉시일승. 歸心源時, 皆無所得, 故言一味, 卽是一乘.]", 상동, 97-98쪽.; "비록 실제로 이러한 모든 공덕의 뜻이 있으나, 차별의 상이 없어서 똑같은 일미로서 오직 하나의 진여다.[수실유차제공덕의, 이무차별지상, 등동일미, 유일진여. 雖實有此諸功德義, 而無差別之相, 等同一味, 唯一眞如.]", 상동, 172-173쪽.; "마음은 일미에 머물러서 일미로써 일체의 맛을 포섭하고 있다.[심주일미, 이시일미, 섭일체미. 心住一味, 以是一味, 攝一切味.]", 상동, 485-486쪽.; "만일 큰 바다에 머물면 곧 여러 물줄기를 포괄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일미에 머물면 곧 모든 맛을 포섭하게 된다.[약주대해, 즉괄중류, 주어일미, 즉섭제미. 若住大海, 卽括衆流, 住於一味, 卽攝諸味.]", 상동, 490쪽.

런 그에게 고향이 모습을 드러낸들 알아볼 리가 없다. 어찌 “고향-맛”을 볼 수 있겠는가?

고향을 맛보려면 고향 언저리에서 서성거릴 것이 아니라 고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향 안으로 들어가 고향이 되어야 한다. 고향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몰라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고향-맛”을 누릴 수 있다. 고향과 하나가 되는 길은 고향과 마주서며 동시에 고향이 됨이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

“고향-맛”은 맛을 모르는, 더욱이 가지가지 기막히다고 하는 맛이나 고향의 맛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모르는 사이에 느낄지도 모른다. “고향-맛”, 그 맛은 고향에 살면서 그곳이 고향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어찌면 오히려 그런 맛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고향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 “고향”이 있기는 있을까? 또 고향의 그 맛, “고향-맛”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삶은 참 묘하다!

“사는 게 무엇인가? 내가 살기는 살고 있나? 왜 객지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무엇인지 모를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 뜻밖에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 맛-삶의 맛- , “고향-맛”이 스스로 찾아오기도 한다.

혼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좁은 창문을 통해서는 나무 밑동만 보여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나무 몇 그루가 기숙사 뒤편에 있었다. 어느 밤, 아내와 아이 생각에 잠겨 교정을 이리저리 걸다가 모르는 사이에 한적한 기숙사 뒤편으로 가게 되었다. 무심히 나무를 바라보니 소나무들이 아닌가! 그리고 가지 사이로 달이 보였다. 고향의 나무들과 달이 거기 있고 그 곳이 고향이었다.

달빛이 부드럽고 적막한 밤, 소나무 곁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텔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는 -고향에 있는, 고향의 향기가 된-' 그 맛을, "고향-맛"을 누렸다. "그 때, 그 곳"에서 나무와 달, '소나무'와 '보름달'을 제 모습대로-그 뿌리로부터- 맛보았다. 그 기막힌 맛은 부족함도 남아도는 것도 없어서 그때 아내와 아이도 함께 있음을 느꼈다.

靜夜思(정야사) 고요·밤·생각

李白(이백)

牀前明月光(상전명월광) 침상 앞 밝은 달빛  
疑是地上霜(의지지사상) 서리가 내렸나 하였네  
擧頭望明月(거두망명월) 고개 드니 밝은 달님 웃어  
低頭思故鄉(저두사고향) 숙여진 머리에 가득한 고향<sup>5)</sup>

이 짧은 오언절구(五言絶句)가 참 많은 것들을 불러 온다: 고요·밤·생각·침상·달·달빛·땅·(흰)서리·고향

이 시(詩)와 함께, 우리가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과 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객지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편안히 쉬려한다. 편안함은 무엇인지 모르게 고향이 주는 어떤 느낌을 일깨운다. 슬그머니 집 생각이 난다. 그런데 웬일인가? 머리말이 흰하다. 서리가 내렸나 했더니 교교한 달빛이 찾아들었다. 올려다보니 적막한 밤하늘 어둠 속에 달님이 둥그러니 떠있다. 천지가 고요하고, 밤하늘 어둠 속에 달님이 흰히 빛나고 있다. 달님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 가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삶의 뿌리-고향-으로 이끌려간다.

이 시의 제목을 이루는 고요·밤·생각은 각각이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말할 수 없는 모습·한 맛-"고향"-을 함께 드러내 보이

5) 邱變友 註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北市, 三民書局, 1996. 修訂九版, 328쪽.

고 있다.

달!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달을 본다. 달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 달을 보기는 보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보는 달은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 등등, 커가는 달이거나 이지러지는 ‘어떤 달’이지 결코 그냥 “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무심히<sup>6)</sup> 달을 지나치다보면 달이 가고 새 달이 온다. 그렇게 열 두 달이 지나면 새해가 온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달을 보면서도 저 달의 “제 모양”이 어떻게 되는 아예 묻지도 않는다. 뜨고 지는 달을 보면서, 저 달의 “제 자리”는 어디일까 하고 묻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물을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달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지만 늘 제 자리에 있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늘 제 모양이라는 이 기막힌 사실을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이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늘 제 모양으로 제 자리에 있는 달이지만 낯선 타향에서 그 달을 만나면 그저 지나쳐지지 않는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적막한 한밤중에 어둠 속에 흰히 빛나는 달을 그것도 홀로 마주대하면 달이야 늘 그렇게 있는 것이지 하는 무관심함에서 깨어나 ‘달-있음’을 비로소 맛보게 된다. 그 맛, ‘달-있음’과 함께 있음이 무심하게 있음이다. 무심하게 있음과 함께 “고향”은, “고향-맛”은 그렇게 찾아온다.

---

6) 우리들은 참 관심 없이 ‘무심히’란 말을 쓰지만 사실 여기서는 ‘관심 없이’라고 해야 옳다. ‘관심 없이’와 ‘무심히’의 의미는 많이 다르다. 관심, 무관심, 무심이 서로 다르다.

## 2. 몸말

‘원효의 고향 이야기’는 원효의 고향, 다시 말해서 원효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경북 상주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고자 하는 ‘삶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에 관한 원효의 이야기다. 그리고 내가 원효의 고향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원효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또 원효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원효의 글이 근원으로서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의 근원으로서의 “고향”은 글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들 하기에 “고향”을 담은 글은 글이 아닌 글이라고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 나아가서 글 아닌 글을 원효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글 아닌 글이기에 “고향을 담아내고”, 또 원효의 글이라고 할 수 없기에 바로 그 때문에 “원효”의 글이 아닐 수 없다. “고향”에 있는 “고향”과 ‘함께 있는’- “고향”이 된 “고향”인- 원효는 더 이상 원효라고 할 것이 없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살아있다.

### 1)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대사(一大事)

사실, 『금강삼매경』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 책의 출현부터가 경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불가사의하다. 『금강삼매경』은 7세기 중엽 신라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경전이며, 이 경전에 최초로 주석한 사람이 원효이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실린 설화에 의하면, 이 경전의 출처는 용궁이며, 신라승(新羅僧) 대안(大安)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라고 한다. 설화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왕의 부인이 머리에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백약이 듣지를 않아, 사신이 약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배를 타고 가는 데 남쪽 바다 가운데서 한 노인이 나타나 용궁으로 데려갔다. 용왕이 약 대신 삼십 장썸 되는 홀어진 『금강삼매경』을 주며, ‘이 경전이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마구니의

장난에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칼을 가지고 사신의 장판지를 베어 그 속에 넣고서 밀랍 종이로 봉하고 약을 바르니 장판지가 예전과 같았다. 사신이 돌아와 왕에게 바치고 왕이 대안에게 차례대로 묶게 하였다. 원효가 이 경전을 받은 것은 바로 본래 태어난 상주에 있을 때였다. 원효가 다섯 권으로 된 주석을 지어 왕이 요청한 날에 황룡사에서 설법하기로 하였는데, 주석서를 도난당했다. 사흘을 연기하여 다시 세 권으로 된 주석서를 만드니 이것을 『약소』라고 한다. 소에 광략의 두 본이 있으니, 약본은 중국에 유입되어 뒤에 변경 삼장이 그것을 고쳐 논(論)이라고 하였다.”<sup>7)</sup>

그 후 지금까지 이 경의 출처와 저자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지만 단정할 만한 것은 없다. 경의 성립문제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원효의 논에 의지하며 이 경에 담겨있는 불가사의한 세계의 맛을 보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갈망하는 “기막힌 맛”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찌다가 운 좋게 느껴보았던, 흔히 어린 시절 고향에서 있었던 꿈같은 추억으로 표현되는, 잊히진 않으나 잡히지도 않는 그 기막힌 맛이 우리들을 맴돌며 한번 씩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다.

‘때 없는 그 때’가 제 때였다!

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은 제 때를 만난 듯이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놀았다. 깔깔대며 웃고 떠들고 뒹굴며 놀았지만 노는 데 빠진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줄도 몰랐다. 사실 그 때 그 곳에는 노는 아이들은 없고, 단지 놀이와 하나가 된 아이들의 놀이-놀고 있음-만 있었다.

7) 참조. 은정희·송진현 역주, 7~14쪽.

“꿈만 같던 어린 시절!”

우리는 한 때였지만 제 때를 보낸 어린 시절의 그 “참되고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근원인 “고향”을, “고향-맛”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 때”와 다름이 없다면, 고향인 줄도 모르며 고향에 살고, 고향과 하나가 되어 기막힌 줄도 모르며 고향의 맛을 누리고 있다면 더 나눌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또 “고향”이 “고향-맛”이 우리와 완전히 무관해졌다 해도 역시 더할 이야깃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 한 가닥 남아있는 듯이 그 “기막힌 맛”이 우리를 ‘때 아닌 때’에 한번 씩 불러낸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 헤맨다.

지옥에는 지옥문이, 천국에는 천국의 문이 있다고들 한다. 지옥문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블랙홀처럼 무시무시한 힘으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온갖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일단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끝이 있다면 어쨌든지 견뎌보련만! 지옥이 정말 두려운 것은 바로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상황이 어찌 그렇게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疑問)을 던진 어떤 현자(賢者)가 있었다던데, 나도 동감한다. 어찌되었든지 지옥문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천국의 문은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어찌나 육중한지 웬만큼 두드려서는 안으로 기별도 가지 않는다. 죽을 듯이 힘을 내서 두드려야 아마 개미가 두드리나보다 하고 아주 조금 열려, 그 틈을 지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려면 천지가 놀랄 만큼 큰 힘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막힌’ 힘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구하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구하긴 구해야 하는데 어찌면 우리가 찾고

있는 ‘기막힌 맛’이 그런 힘을 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고향”에도 문이 있다. ‘무문관 無門關<sup>8)</sup>’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이다. 이 문(門)을 통해야 비로소 “고향”을 맛 볼 수 있다.

그런데 ‘무문관 無門關’은 삼중의 문이다:

하나는 ‘무문관 無門/關’으로 여는 것은 차치하고 아예 문이 없는 관이다. 거대한 암벽 같은 관을 깨뜨리든 타고 넘든 이 ‘문 없는 관’을 통(과)해야 “고향”을 볼 수 있고, 그 맛을 볼 수 있다. ‘문 없는 관’으로서의 ‘무문관’은 우리에게 “고향”에 대한 일종의 암시를 준다.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지난(至難)하거나 어찌면 아예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이다.

또 하나는 ‘무문관 無/門關’으로 문도 관도 없는 마치 유명 같은 관문이다. 문(門)도 없고 관(關)도 없으니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문을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조차 전혀 알 길이 없다. 아니 그에 앞서서 도대체 문을 찾을 길도 없다. 출입문마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하나는 ‘무문관 無·門關’으로 ‘무(無)’의 관문이다. 앞에서는 문과 관이 없었지만 이 관문은 단지 ‘무(無)’라는 관문을 통해야 한다. ‘무(無)-없음’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 무가 있으면 뛰어넘고, 무가 없으면 그냥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글썬요?

불가사의의(不可思議)하지만 이 관문을 통하면 바로 “고향”이고 그 기막힌 “고향-맛”을 볼 수 있다. 허망함이 없는, 실제의 참되고 한결같은, 더할 것도 덜어낼 것도 없는 “고향”에서 그 맛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일대사—大事”가 아닌가!

---

8) 송(宋)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지은 책, 『(禪宗)無門關』. 책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을 살펴보려고 책이름을 빌려왔다.

“이 때 해탈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 후세의 중생을 위하여 일미의 궁극적인 진실을 설명하시어 중생들로 하여금 똑같이 해탈하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네가 나에게 세간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물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벗어나는 과보를 얻게 하려 하니, 이것은 일대사로서 불가사의한 것이다.’”<sup>9)</sup>

불가사의한 이런 일에 하이데거는 무엇이라 말할지 궁금하다.

## 2) ‘설법(說法)’

이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따라가며 이 ‘일대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자:

『금강삼매경』의 제목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섭대승경’이고, 둘째는 ‘금강삼매’라 하고, 셋째는 ‘무량의종’이라고 한다.

‘금강’이란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니, 단단함을 체성(體性)으로 삼고, 꿰뚫고 깨뜨림을 공능(功能)으로 삼는다. 금강삼매(金剛三昧)도 또한 그러하여 실체를 체성으로 삼고, 깨뜨리고 뚫는 것으로 공능을 삼는다.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삼매는 일체의 법을 깨뜨려 모두 얻을 것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금강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깨뜨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금강삼매(金剛三昧)’라 이름하고, 세우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섭대승경(攝大乘經)’이라고 이름하며, 모든 뜻의 종지가 이 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량의종(無量義宗)’이라 한다.<sup>10)</sup>

경의 구성은 1. 대의 서술[初述大意] 2. 경의 종지를 밝힘[次辨經宗] 3. 제목을 해석[三釋題名] 4. 글의 뜻풀이[四消文義]로 되어 있다.

그리고 4. 글의 뜻을 풀이한 부분은 1) 서분(序分) 2) 정설분(正說分)

9) 은정희·송진현 역주, 98~103쪽. 일대사: 부처가 세간에 출현한 오직 하나의 목적은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열어 보이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일대사이다.

10) 참조. 은정희·송진현 역주, 20쪽.; 43~48쪽.

3) 유통분(流通分)으로 나뉘고, 2) 정설분은 다시 (1) 무상법품(無相法  
品) (2) 무생행품(無生行品) (3) 본각리품(本覺利品) (4) 입실제품(入實  
際品) (5) 진성공품(眞性空品) (6) 여래장품(如來藏品) (7) 총지품(摠持  
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정설분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으니, 앞의 여섯 품은 관행(觀行)  
을 각각 나타낸 것이고, 총지의 일품은 의심을 통틀어 보내는 것이  
다.<sup>11)</sup>

원효는 육품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2)</sup>

첫째 <무상법품>은 상이 없는 관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 <무생행품>은  
일어남이 없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셋째 <본각리품>은 본각에 의하  
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넷째 <입실제품>은 허상으로부터 실제에  
들어가는 것이며, 다섯째 <진성공품>은 일체의 행위가 진성의 공(空)에  
서 나옴을 식별하는 것이고, 여섯째 <여래장품>은 한량없는 문[無量門]  
이 여래장에 들어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여섯 문에 관행이 두루 다  
하니,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모든 망상이 무시(無始)로부터 흘러 다니게  
된 것은 다만 상을 취하여 분별하는 병 때문이다. 이제 그 흐름을 돌이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먼저 모든 상을 깨뜨려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무상법을 관(觀)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비록 모든 상을 없애버렸  
더라도 관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관하는 마음이 오히려 일어나서 본각  
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무생행을 나타내었다. 행위가 이미 일어남이 없어서 이제 본각에 부합하  
며, 이것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익을 얻게 하니, 그래서 세  
번째 본각리의 문을 밝혔다. 만약 본각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  
생이 곧 허상으로부터 실제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러므로 네 번째 입실  
제(入實際) -실제에 들어감- 을 밝혔다. 내면의 행은 곧 모양이 없고 일

11) 이기영 역해,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敎研究院, 1996, 21쪽. 앞으로 ‘이기영 역해’로  
표기하도록 한다. 은정희·송진현 역주, 14~18쪽.

12) 은정희·송진현 역주, 82~86쪽.

어남이 없으며, 밖으로의 교화는 곧 본각의 이익으로 만 가지 행위를 구비하되 똑같이 참된 자성으로부터 나와서 모두 진성의 공을 따른다. 이 때문에 다섯 번째 진성공을 밝혔다. 이 진성에 의하여 만 가지 행이 곧 갖추어져서 여래장일미의 근원에 들어가니, 그 까닭에 여섯 번째 여래장을 나타내었다. 이미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면 곧 작위함이 없으며, 작위함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육문(六門)을 설명함으로써 대승을 포섭한 것이다... 또한 이 육품은 오직 일미(一味)다. 왜냐하면 상(相)과 생(生)은 자성이 없고, 본각은 근본이 없으며, 실체는 경계를 떠난 것이고, 진성 또한 공한 것이니, 무엇에 연유하여 여래장의 자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아래의 <여래장품> 중에서 '이 식(識)은 항상 적멸하며, 적멸한 것도 또한 적멸하다'고 말하고, <총지품>에서 '칠식과 오식이 생기지 아니하며, 팔식과 육식이 적멸하며, 구상이 공허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얻을 것이 없는 일미가 바로 이 경의 중요하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모든 문이 전개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한량없는 뜻을 짓는 중지(무량의중(無量義宗))가 되는 것이다. 비록 일미이지만 여섯 가지 문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섯으로 글을 나누어 해석하였다.

이제 “고향문”을 여는 원효의 처방이 어떤 것인가 하는 큰 윤곽은 드러난 것 같다. ‘무상법’이니 ‘무생행’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이 우리들의 기를 꺾으려고 들지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상에 우리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심히 바라보면 그런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쩌다가 우리들에게 한번 씩 일어나는 일-무심히 바라보다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무상법’·‘무생행’의 관행과 다르지 않은지도 또한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무모한 일처럼 보이지만 ‘불가사의한 일대사’의 주역이 되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하기는 ‘무심히’ 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 과연 불가사의(不可思議)하지 않은 사물이 있기는 하는지?

여기서 분명히 짚어보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부

처님과 원효의 말씀이 과연 “불가사의한 일미진실”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고작해야 “말할 수 없는” 혹은 “기막힌”이라는 표현 등으로 다가가려고 애쓰는 “고향”에 관한 ‘있는 그대로-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이른바 설법(說法)의 타당성을 경(經)에서 직접 들어보자:

[경]

사리불이 말하였다:

‘일체의 만법은 모두 문자와 언어이고, 문자와 언어의 상은 곧 의(義)가 아닙니다. 여실한 의(義)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 이제 여래께서는 어떻게 설법하십니까?’<sup>13)</sup>

[논]

물음 가운데 ‘일체의 만법’이라고 한 것은 세간의 언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다. 언설의 법과 같은 것은 모두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오직 문자와 언어일 뿐이요 곧 의(義)가 되지 못하며, 모든 법의 여실한 의(義)는 모든 언설을 끊었다.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 만일 문자와 언어라면 곧 여실한 의(義)가 없게 되고, 만일 여실한 의(義)가 있다면 마땅히 문자와 언어가 아닐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 설법하십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問中言‘一切萬法’者, 世間言說所安立法. 如言之法, 皆無所得, 故唯文言, 卽非爲義, 諸法實義, 絕諸言說. 今佛說法, 若是文言, 卽無實義, 若有實義, 應非文言. 是故問言‘云何說法?’)<sup>14)</sup>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3) 은정희·송진현 역주, 437쪽.; 『금강삼매경론』, 한불전1, 653a쪽.  
舍利佛言 “一切萬法, 皆悉文言, 文言之相, 卽非爲義. 如實之義, 不可言說, 今者如來, 云何說法?”  
14) 같은 책, 같은 곳.

‘(가)내가 법을 설명하는 까닭은 너와 중생들이 간직해 두거나 일으키는 것으로써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설명은 (여실한 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나)내가 설명하는 것은 의(義)를 나타낸 말이요 문자가 아니지만, 중생들이 설명하는 것은 문자만 나타내는 말이요 의(義)가 아니다.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말은 모두 공허한 것이고, 공허한 말은 의를 설명하지 못하니, 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말이다. 여실한 의를 나타내는 말은 실상이 공적하면서도 공적하지 않고, 공적함이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상을 떠났으면서도 중간에도 맞지 않는다. 중간에도 맞지 않는 법은 세 가지 상을 떠나서 처소를 볼 수 없으니 여여한 의리에 계합하는 말이다. (다)진여는 유 없음도 없으니 무에 있음이 없다. 진여는 무 있음도 없으니 유에 없음이 있다. 유와 무가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않다고 말한 까닭에 진여에 두지 않는다. 진여는 진여가 있지 아니하고 진여가 없지 않다고 말한다.’

(佛言 ‘(가)我說法者 以汝衆生 在生說故 說不可說 是故說之 (나)我所說者 義語非文 衆生說者 文語非義 非義語者 皆悉空無 空無之言 無言於義 不言義者 皆是妄語 如義語者 實空不空 空實不實 離於二相 中間不中 不中之法 離於三相 不見處所 如如如說 (다)如無無有 無有於無 如無有無 有無於有 有無不在 說不在故 不在於如 如不有如 不無如說’)15)

여기까지 우리들의 궁금증을 대신한 사리불의 물음과 그에 대한 부처의 답이 끝났다. 만약 부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뜻을 얻으면 아마 ‘얻음이 없는 일미(一味)[無所得之一味]’16)를 맛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각의 완전한 뜻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니, 모든 이승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부처와 보살이라야 알 수 있다 [一覺了義 難解難入 非諸二乘之所知見 唯佛菩薩 乃能知之]”17)고 했

15) 같은 책, 437-439쪽. 번역문의 일부는 번역을 달리하였다.

16) 같은 책, 87쪽.

17) 은정희·송진현 역주, 95쪽.; 『금강삼매경론』 한불전1, 609c쪽.

으니, 원효의 논을 따라가며 한 걸음만 나아가도 얻음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경문 중에서 (다)의 부분은 그 뜻이 정말 난해해서 주요 번역본의 번역문에 차이가 적지 않다. 이 점은 원효의 논을 옳기는 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원효의 “고향”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번역문을 대조해가며 그 뜻을 구해보겠다.<sup>18)</sup>

[논]

如無無有 無有於無者 謂眞如理雖非是有而 如本無令無其有 謂令無有法於無法中

所以然者 如本非有 無於何有而墮無耶 是故合於實空不空之語也 <sup>19)</sup>

이기영: 如无无有 无有於无라고 한 것은 진여(眞如)의 도리(理)는 유(有)가 아니지만 그 근본인 무(无)가 그 유(有)를 무(无)하게 하며, 무법(无法) 중에 유법(有法)이 없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진여는 본래 유·무(有无)가 아닌 때문이니 무슨 유(有)에서 무(无)로 떨어진단 말일까. 그러므로 “실상(實相)은 공(空)하다”하는 말과 “그것은 불공(不空)하다”하는 두 말을 합쳐서 말했던 것이다.

은정희: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아니하니, (어찌) 무에서 유를 없애겠는가’라고 한 것은, 진여의 이(理)는 비록 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가 본래 유를 없앴, 즉 무법 중에서 유법을 없앴다는 것은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 까닭은 진여는 본래 유가 아니니, 어떤 유를 없애서 무에 떨어지겠는가? 이 때문에 ‘실상이 공적하면서도 공적하지 않다’는 말에 합치한다.

18) 이에 관해서는 줄고(拙稿) 『元曉思想 小考(其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입문(入門)의 한 걸음 -』 참조.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충하였음.

19) 이기영 역해, 438~439쪽.; 은정희·송진현 역주, 442~443쪽.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원문의 띄어쓰기는 이기영 역본에 따랐는데, 은정희·송진현 역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생겨난 것인데 소소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의 글은 앞 장의 글과 위의 두 한역을 참고하여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진여는 유(有) 없음도 없으니 무(無)에 있음이 없다’고 한 것은 진여의 이(理)는 비록 유(有)가 아니지만 진여가 그 유(有)를 무(無)하게-없게-함은 본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무법(無法) 중에 유법(有法)이 없도록 함을 말했다. 그 까닭은 진여는 본래 유(有)가 아니니, 어떤 유(有)에 무(無)하여 무(無)로 떨어진단 말인가? 그러므로 실상이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는 말에 합치한다.

조금 더 설명하면 ‘유 없음[無有]’은 곧 없음[無]이지만 무법(無法)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없음[無]’이라 하더라도, 없음이라는 것조차도 (남아) ‘있으면’ 유법(有法)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 없음[無有]’의 없음마저 없어야[無/無有], 다시 말해서 없음도 없어야 비로소 유법이 없어 ‘실공불공(實空不空)’<sup>20)</sup>이란 말과 합치될 수 있다.

요약하면 진여는 없음은 고사하고 없음성이라도 ‘있으면’ ‘비유(非有)’라고 할 수 없는데, 진여는 없음성(無性)마저 ‘없어’ 유성이 없으니 유가 아니란 말이다[非有]. 바로 그런 까닭에 그 실상(實相)이 실로 공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실로 공하기에 공을 드러내는 이치는 전혀 공하지 않다.

---

20) ‘실상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의 실상은 또한 공한 것이어서 앞에서 ‘공상도 또한 공하다’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실상은 공하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도 그 실상의 이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고 말하였으니, 비록 실(實)이 있지 아니하나 또한 실(實)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참조. 은정희·송진현 역주, 441~444쪽.; 이기영 역해, 435~437쪽.

如無有無 有無於有者 謂眞如理雖非是無 而如本無令有其無 謂令有無法於有法中 所以然者 如本非無 有於何無而墮有耶 是故合於空實不實之語

이기영 : 如无有无 有无於有라고 한 것은 진여의 도리가 무(无)가 아니지 마는 진여(眞如)의 근본인 무(无)가 그 무(无)를 유하게 하고 유법(有法) 중에 무법(无法)을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진여(眞如)는 본래 무·유(无有)가 아닌 까닭이니 무슨 무(无)에서 유(有)로 떨어진다 말일까? 그러므로 “진공(眞空)의 도리(理)가 알차다”하는 말과 “그것이 알차지 않다”하는 말을 합쳐서 말했던 것이다.

은정희 : ‘진여는 무를 두지 아니하니, (어찌) 유 가운데 무를 두겠는가’라고 한 것은 진여의 이(理)는 비록 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가 본래 무를 가지고 있음, 즉 유법 중에서 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 까닭은 진여는 본래 무가 아니니, 어떤 무를 가지고 있어서 유에 떨어지겠는가? 이 때문에 ‘공적함이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합치한다.

위 원효의 글을 두 번역문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옮기면 그 뜻이 보다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진여는 무(無) 있음도 없으니, 유(有)에 없음이 있다’고 한 것은 진여의 이(理)는 비록 무(無)가 아니지만 진여가 그 무(無)를 유(有)하게 함은 본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유법(有法) 중에 무법(無法)이 있도록 함을 말했다. 그 까닭은 진여가 본래 무(無)가 아니니 어떤 무에 유하여 유로 떨어진단 말인가? 그러므로 공이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다는<sup>21)</sup> 말에 합치한다.

21) ‘공이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다’고 한 것은 진공의 이(理)는 실재하기 때문에 ‘공이 실재한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도 진공의 이(理)를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

설명하면 ‘무 있음[有無]’에서, 다시 말해서 ‘무(無)의 유(有)’마저 없어야[無/有無] ‘공이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합치한다. 다시 말해서 진여는 유(有)는 고사하고 일체의 유성(有性)이 없다. 심지어 ‘무(無) 있음’-무성(無性)- (의 유성)조차 없다. 진여는 무성이랄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없음은 진여가 무를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진여는 본래 무가 아니다[非無]. 무성이 있으면 비무(非無)라고 할 수 없겠으나, 무성조차 없으니 진여는 무가 아니다. 무성마저 없으니 공이 공하다. 공이 실로 공하니, 공이 실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이 실하니 또한 공이 부실하다.

有無不在者 如無有無故 有不在 如無無有故 無不在 二既不在 何得有中 卽合離於三相之語 如義既爾 合於義語 是故佛語實非空文 如是重顯非文釋也 佛說名言 如是當理故 後得智帶如是名 思惟眞如 卽得親觀眞如理體故

이기영 : 有無不在 진여(如)에는 유·무(有無)가 없으므로 유(有)가 있지 않다. 진여(眞如)에는 무·유(無有)가 없으므로 무(無)가 있지 않다. 두 가지가 이미 있지 않으니, 어찌하여 중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합쳐지고 떨어지고 세 가지 상(相)을 가진 말에 있어서 진여(眞如)의 뜻이 이미 그러하다. 뜻있는 말(義語)에 부합하므로 부처님의 말씀은 실로 헛된 글(空文)이 아니다. 이와 같이 거듭하여 비문(非文)이라 말을 해석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이름과 말(文言)이 이와 같이 도리(理)에 맞으므로 후득지(後得智)가 그와 같은 이름을 띠게 된다. 진여를 사유하면 곧 진여의 이체를 친히 관할 수(親觀) 있다.

은정희 : ‘유와 무를 간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진여는 무를 두지 않기

---

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비록 공이 없지 않으나 또한 공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정희·송진현 역주, 441~442쪽.

때문에 유[있다는 견해]가 있지 않으며, 진여는 유를 없애지 않기 때문에 무[없다는 견해]가 있지 않다. 두 가지[유와 무]가 이미 있지 않으니, 어찌 중간을 둠이 있겠는가? 이것은 곧 ‘세 가지 상을 떠났다’는 말에 합치한다. 진여의 뜻이 이미 그러하여 의(義)를 나타내는 말에 합치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여실하여 공허한 문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문자가 아님’을 설명한 것을 거듭 나타내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명칭과 말은 이와 같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후득지로써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진여를 사유하면 곧 진여의 이체(理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 글도 다음과 같이 한역하면 그 뜻이 조금은 더 살아난다고 본다:

‘유무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는 무의 있음[有無]도 없어 있음[有]이 있지 않고[不在], 진여는 유[有]의 없음[無有]도 없어 무[無]가 있지 않다. 둘[二, 곧 有·無]이 이미 있지 아니하니 어찌 중간[中]을 둠이 있겠는가? 이것은 곧 ‘세 가지 상을 떠났다’는 말에 합치한다. 진여의 뜻이 이미 그러하여 의(義)를 나타내는 말에 합치한다. 이런 까닭에 부처의 말씀은 여실하여 공허한 문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문자가 아님’을 설명한 것을 거듭 나타내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름과 말이 이와 같이 도리[理]에 합당한 까닭에 후득지가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진여를 사유하면 곧 진여의 이체(理體)를 친히 관(觀)할 수 있다.

[논]

說不在故 不在於如者 佛語既說有無不在故 不在有無於眞如理 有不在者 不有如故 無不在者 不無如故 則當不有如不無如而說 故言如不有如 不無如說 是故前言如如如說

이기영 : 說不在故 不在於如란 부처님의 말씀은 이미 유·무(有無)가 부재(不在)라고 설하셨으므로 진여의 도리(理)에는 유·무(有無)가 있지 않

다. 유(有)가 부재(不在)라는 것은 유여(有如)하지 않은 까닭이며, 무(無)가 부재라는 것은 무여(無如)하지 않은 까닭인즉 마땅히 유여(有如)하지 않고 무여(無如)하지도 않게 설(說)해야 하는 까닭에 “진여(眞如)는 유여(有如)하지 않고, 무여(無如)하지 않게 설한다[如不有如不無如說]”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진여(眞如)는 여여(如如)하게 설(說)한다[如如如說]”라고 하는 것이다.

은정희 : ‘있지 아니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진여를 두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미 유와 무가 있지 아니함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진여의 이(理)에 유와 무가 있지 않다. ‘유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를 두지 않기 때문이고, ‘무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를 없애지 않기 때문이니, 곧 진여를 두지 않으며 진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에 합치시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여는 진여를 두지도 않으며 진여를 없애지도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앞에서 ‘여여한 이치에 계합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끝을 맺는 부처의 말씀에 대한 원효스님의 설명인데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다:

‘있지 않음을 설명했으니 진여에 (有無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유무가 있지 아니함을 이미 설명하셨으니 따라서 진여의 이(理)에 유와 무가 있지 않다. ‘유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무가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진여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곧 진여가 있지 않고, 진여가 없지 않다는 것에 합당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진여는 진여가 있지 않고 진여가 없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앞에서 ‘여여한 이치에 계합(契合)하게 말한다’고 한 것이다.

3) “고향”

“스스로 입을 다문 대사(大士)와 스스로 목격한 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능히 언설을 떠난 대승(大乘)을 논하고, 사려(思慮)를 절(絶)한 깊은 믿음(深信)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sup>22)</sup>

두구대사(杜口大士)와 목격장부(目擊丈夫)에 이어지는 ‘깊은 믿음’이란 원효스님의 말씀은 설법의 한계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요함을 가져온다.

이제는『금강삼매경론』과 함께 “고향”을 맛볼 때가 된 것 같다. 원효스님이 [논]의 첫 머리에 쓴 ‘초술대의(初述大義)’를 ‘무문관’을 깨뜨리는 ‘금강(金剛)’으로 삼으려고 한다. 만약 이 글에서 일심(一心)의 근원이 울림을 보면 이미 들어가야 할 문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夫一心之源，離有無而獨淨；三空之海，融眞俗而湛然。  
무릇 일심의 근원은 유무를 떠나 홀로 맑고[독정(獨淨)]; 삼공의 바다는 진속(眞俗)을 원융(圓融)하니 깊이 고요하다[담연(湛然)].

湛然，融二而不一；獨淨，離邊而非中。  
담연은 둘을 원융하니 하나가 아니요; 독정은 (양)변을 떠나되, 가운데가 아니다.

非中而離邊故：不有之法/不卽住無，不無之相/不卽住有。  
가운데가 아니며 양변을 떠난 까닭에; 있지 아니한 법이 곧 무(無)에 머무르지 않으며, 없지 아니한 상(相)이 곧 유(有)에 머무르지 않는다.

不一而融二故：非眞之事/未始爲俗，非俗之理/未始爲眞也。  
하나가 아니며 둘을 원융하니; 참되지 않은 일이 곧 속(俗)되지 아니하고, 속(俗)하지 아니한 이(理)가 곧 참되지 아니한다.

22) 이기영, 『元曉思想』, I 世界觀, 상동: “自非杜口大士目擊丈夫，誰能論大乘於離言，起深信於絕慮者哉!”

融二而不一故：眞俗之性/無所不立，染淨之相/莫不備焉。  
둘을 원융하니 하나가 아닌 까닭에; 진속의 성(性)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없고, 물듬과 맑음의 상(相)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離邊而非中故：有無之法/無所不作，是非之義/莫不周焉。  
(양)변을 떠났으나 가운데가 아닌 까닭에; 유·무(有·無)의 법이 이루어  
지지 않는 바가 없고, 그러함과 아니 그러함[시비(是非)]의 뜻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도다.

爾乃，無破而無不破，無立而無不立，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然矣。  
이와 같이 깨뜨림이 없으며 또한 깨뜨리지 않음이 없고, 세움이 없으며  
또한 세우지 않음이 없으니, 이치 없음의 지극한 이치요, 그렇지 아니함  
의 온전히 그러함이라(고) 이를 만 하도다!

是謂斯經之大意也。  
이것이 이 경의 큰 뜻이다.

良由，不然之大然故，能說之語/妙契環中；  
진실로, 그렇지 아니함의 온전히 그러함인 까닭에 능한 말씀의 말이 오묘  
하게 환중에 계합하고

無理之至理故，所詮之宗/超出方外。  
이치 없음의 지극한 이치인 까닭에 표현된 증지는 한계(限界)가 없다.

無所不破故，名金剛三昧；無所不立故，名攝大乘經。  
깨뜨리지 않는 무엇이 없기에 금강삼매라 이름하고, 세우지 않는 무엇이  
없기에 섭대승경이라 이름하며,

一切義宗，無出是二。是故亦名/無量義宗。

모든 뜻의 중지가 이 둘을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또 무량의종(無量義宗)이라 이름한다.

且舉一目，以題其首，故言/金剛三昧經也.

우선 하나를 들어 그 머리 제목을 삼아 금강삼매경이라고 한다.<sup>23)</sup>

일심의 근원-여여(如如)한 “고향”-은 찾는다고 해서 꼭 찾을 수 있지도 않고, 구한다고 해서 꼭 구할 수 있지도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고향”에 관한 원효의 글에서 그 뜻을 보았다면 더 이상 “고향”을 찾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일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근원과 하나이며 둘이다. 그 마음은 때로, ‘때 아니게’ 삶의 근원에서 나는 울림을 느끼며 놀라워한다. 그리고 마음이 근원과 둘이며 하나일 때 근원 안에서 울림의 맛을 본다.

원효는 근원이 “홀로 맑다(독정(獨淨))”고 했고, 근원과 ‘함께 있는’ - 하나인- 마음이 “깊이 고요하다(담연(湛然))”고 했다. 함께 있음은 하나가 아니면서 하나로 있음이고 나아가서 하나임과 다르지 않다. 개개인의 마음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그 근원과 함께-근원에- 있을 때는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 하나인 마음이 원효가 말하는 “일심(一心)”이다. 일심은 원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누구의 마음이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누구의 마음도 아닌 일심이 고향에서 고향의 맛을 누린다.

23) 은정희·송진현 역주, 19-22쪽, 이기영 역해, 24-27쪽의 한역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현방식의 차이도 있고, 또 뜻이 다른 곳도 있다.

### 3. 맺는 말

속리산(俗離山)·도봉산(道峰山)·무등산(無等山)!

이름 아닌 이름이, 산 아닌 산이 우리 가운데 불가사의하게 있다. 이 땅에 사신 이들은 도대체 산(山)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이들은 산을 바라보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산을 보거나 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살아온 분들이 맛보았던 산이 주는 눈길을, 산의 울림을 제 눈으로 가리고 제 귀로 막는 불가사한 삶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 그럼에도 일대사-불가사의한 일- 또한 눈길이 닿는 어디에나 불가사의하게 어둠 속에 있다.

“고향”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 어디에도 없지 않다. 우리가 무문관(無門關) 너머의 “고향”에서 ‘얻을게 없는 한 맛’을 보는 것은 ‘참 큰 일[一大事]’이며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한편 우리가 오랜 옛적부터 간직해 내려온 ‘기막힌 맛’은 또 얼마나 불가사의한가! 그 맛은 대대로 이어져오며 그 어떤 맛이라고도 할 수 없으나 또한 어느 한 맛도 빠뜨리지 않으며 ‘기막힌 맛’이 되어 우리를 때 없이 삶의 근원으로 이끌어 간다.

‘기막힌 맛’은 ‘기막힌’이란 말이 담고 있는 ‘있지 않고, 없지 않은’ 맛이다. 그리고 “‘없이 있음’이 불러일으키는 <바람>”<sup>24)</sup>의 맛을 볼 수 있다면 그 맛 또한 ‘얻을게 없는 한 맛’과 다르지 않은 ‘기막힌 맛’이 아닐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음을 지탱하는 근원의 느낌이다. ‘무심히 있음’ - ‘함께-있음’- ‘있음’-의 고요한 울림이다.

“모든 정상(頂上)에는 고요함이 있다.”<sup>25)</sup>

---

24) 이기상, 상동

25)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박휘근 옮김, 『형이상학 입문』, 149쪽.

어쩌면 고요함이 있는 곳이 정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고요하려면 정상이니 고요함이니 하는 그런 시끄러운 것들이 침묵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정상에는 고요함이 있다!”

## 【참고 문헌】

- 은정희·송진현 역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 이기영 역해, 『金剛三昧經論』, 韓國佛敎研究院, 1996.
- , 『元曉思想』, I 世界觀, 弘法院, 2003.
- 이기상, 『하이데거의 존재사건학』, 서광사, 2003.
-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 박휘근 옮김, 『형이상학 입문』, 문예출판사, 1997.
- 박정근, 「元曉思想 小考(其一) - 『金剛三昧經論(金剛三昧經論)』 입문(入門) 의 한 걸음 -」, 『인문학 연구』 제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邱燮友 註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北市, 三民書局, 1996, 修訂九版.

**【Abstract】**

## A Story of ‘Hometown’ by Wonhyo

Park, Chung-Keun

Wonhyo said a story of ‘Hometown’ in his book entitled “Kumgang-samme-gyengron(金剛三昧經論)”. It shows us ‘the whole & none non-doing(觀行) on the one tasteless Taste(一味) of the mindless Mind(一心) explained as the being-alone and clearnessless clear(獨淨), and the bottomless deep and calmless calm(湛然).

一大事, 不可思議!

**【Key words】** the mindless Mind(一心), the one tasteless Taste(一味), ‘Hometown(故鄉)’, Wonder(不可思議)